

2023 경기예술지원 기초예술창작지원 【 시각예술-창작준비 】 심의평

2023년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지원 시각예술 분야 <창작준비> 지원 심의는 총 2차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40명의 작가를 선정하였습니다. 올해의 경우 시각예술분야-창작준비 지원>에 344명의 많은 작가들이 지원하였습니다. 포트폴리오와 작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신작 준비를 위한 프리프로덕션 작업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며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석하신 네 분 심의위원의 의견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기존의 창작을 중심으로 그 역량을 판단하였고, 동시에 창작을 위한 준비단계인 만큼 그 과정이 얼마만큼 체계적인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고려하였다. 또한, 작가의 열정적인 태도 및 사고의 유연성까지 검토했는지를 심사에 반영하였다.

○ 미술계가 시장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듯 보이는 현 시점에서 보다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심화된 작품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문화재단의 시각예술 창작준비 기금의 의미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작업 성향에 점수를 주었다. 그리고 지원을 위한 많은 작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수의 작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금 신청서의 구체성과 충실성에서 연구의 열의를 가늠하여야 했다.

○ 실험적, 의욕적인 기획서들이 많아 선정이 매우 어려웠다. 자신의 작업을 충실히 설명하고, 하고자 하는 바를 명료하게 드러낸 기획서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다만 기획서의 내용과 제시한포트폴리오의 차이가 큰 경우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었다.

○ 지원자 대다수는 명확한 주제 설정과 구체적 실행 계획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예술지원 사업인 만큼 지역과 맥락에 대한 의식과 장르의 외연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심사에 임했다. 또한 창작 준비를 지원하는 기금인 만큼 도전적이면서도 실험적인 기획과 동시대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계획안에 좀 더 점수를 배점하였다.

2023.2.23.

심의위원장	이관훈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대표)
심의위원	김인선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대표)
심의위원	임민욱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부교수)
심의위원	홍지석	(단국대학교 교수)